

걸 다르고 속 다른 설난영 여사

대체 설 여사의 발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최근 설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여리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동화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습니다.”

설 여사는 노조의 노자도 모른다면 “(당시) 노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민노총이 되어서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 당시 노조는 현장의 권익 보호를 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노동운동은 순수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이라며 폄하한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외모로 평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조하는 사람들은 못생기고 과격하다는 발언이, 본인 스스로 노동운동을 했던 장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국민 앞으로 나와서는, 구로공단을 찾아 여성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노동운동 이력을 홍보하는 것을 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차라리 김문수 후보의 말은 앞뒤라도 같습니다. 극우로 변질된 김 후보는 “노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등 반노동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오늘도 미사여구와 광폭행보를 하시는 설 여사께 묻겠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대체 무엇이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2025년 5월 23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